



Original Article

The Effects of a Sexual Violence Counselor Program on Knowledge toward Sexual Violence, Sexual Autonomy and Rape Myths*

Lee Kyu-Eun¹⁾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wandong University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이 성폭력에 대한 지식, 성적 자율성 및 강간통념에 미치는 효과*

이 규 은¹⁾

1)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sexual violence counselor program on knowledge toward sexual violence, sexual autonomy and rape myths. **Method:**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The program was delivered to thirty-three persons during 10 weeks for a total of 65 hours. **Results:** After the program, knowledge toward sexual violence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11.6 to 12.5($t=-2.10$, $p<.05$), and sexual autonomy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50.6 to 53.7($t=-2.35$, $p<.05$). After the program, rape myths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42.4 to 29.0($t=7.80$, $p<.001$). **Conclusion:** A sexual violence counselor program was effective to increase knowledge toward sexual violence and sexual autonomy and to diminish rape myths.

Key words : Violence, Counselor, Knowledge, Autonomy, Rape

서 론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은 가치관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고, 성 개방화 추세는 각종 대중매체를 오염시키는 한편 불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확산을 통해 성 문란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국민의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성폭력 범죄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스토킹, 사이버 폭력 등 신종 성폭력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의 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높은 수위에 있으며, 그 영향은 여성에게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폭력은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가족을 해체시키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개인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Kim, Lee, Kim, & Cho, 2002b). 2005년 경찰청에 보고된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13,446건으로(Police Agency, 2006), 성폭력 신고율이 2.9%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

* 본 연구는 2006년 관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투고일: 2006. 10. 23 1차심사완료일: 2006. 10. 30 2차심사완료일: 2006. 11. 20 3차심사완료일: 2006. 12. 8 최종심사완료일: 2006. 12. 13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Kyu-Eun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wandong University

522, Naegok-dong, Gangneung city, Kangwondo 210-701, Korea

Tel: 82-33-649-7617 Fax: 82-33-649-7620 E-mail : lke@kwandong.ac.kr

면 실제 성폭력 발생 건수는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사실상 성폭력 발생률 세계 1위라는 견해도 있다(Lee, M. S., 1999). 성폭력 사건에 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자이고 피해자는 여자이며, 가해자는 면식범인 비율이 높고, 피해연령은 특정연령에 국한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사건을 치안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Berry, 1995). 우리나라는 1994년 1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수행하였고, 법무연수원에 여성폭력문제에 관한 교육과목이 신설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피해자 쉼터 및 상담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서울여성의 전화 1366과 여성보호 및 상담시설 간 연계망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발생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한 이래 이후 1996년 23개소, 1998년 35개소, 2000년 48개소, 2005년 17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건수는 2002년 26,815건에서 2005년 46,21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6).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 건수의 증가로 자격이 있는 성폭력상담원 양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되고 있다. Kim, Cho, Kim과 Kim(2002a)에 의하면 성폭력상담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 전문상담원 교육과 상담원 양성교육 및 재교육, 그리고 성폭력 근절·예방운동 캠페인 및 성폭력 추방 캠페인 등이 14.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식관련 프로그램이 11.5%, 그리고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예방강연, 각 학교 순회 성교육과 일반인을 위한 성교육이나 의사소통기법, 행위자 이해 및 상담기법,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양강좌, 아동 및 노인 학대 등이 각각 10.7%의 순으로 나타나 성폭력상담원 교육이 성폭력상담소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1.2%의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특히 성폭력상담원 교육은 교육과정 이수자들이 상담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일반인을 위한 성폭력예방교육보다 교육과정 운영 시 더욱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성폭력에 대한 지식과 상담자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심화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원의 교육시간은 총 64시간으로 그 중 6시간은 소양분야, 40시간은 전문분야, 나머지 18시간은 분임토의, 실무사례발표 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교육과목의 20% 안

에서 교육훈련 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원의 양성은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주로 민간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기관에 따라 교과목 및 교육내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자질과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Kim et al., 2002a).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상담원 양성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담원 양성교육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성폭력상담원교육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성폭력에 대한 지식은 성폭력 예방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인 강간통념은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적인 사고와 힘의 상대적 우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규범에 의해서 생성되어 남성들이 여성을 폭행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Lee & Lee, 2005)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Han과 Ham(2000)의 연구를 보면 서로간의 진정한 동기가 아닌 한쪽의 순간적인 충동과 분위기에 이끌려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성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성문제 발생 시 대처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폭력에 대한 지식, 강간통념 및 성적 자율성의 확보는 성폭력예방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현재까지 성폭력상담소 및 상담원 관련 연구를 보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기능·역할 강화 방안(Kim et al., 2002a),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Kim et al., 2002b) 및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Kim et al., 2004)가 있었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이 발효·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고 여성관련 단체에서 수많은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효과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G시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다.

2. 연구가설

-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 연구대상자의 성폭력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 연구대상

자의 성적 자율성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 연구대상자의 강간통념의 수용도가 낮아질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 성폭력에 대한 지식 :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에 대해 아는 것 혹은 아는 내용을 말하며 (Doosan encyclopedia, 2005), 본 연구에서는 Song(2003)이 개발한 13문항을 측정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성적 자율성: 성적인 상황에서 외부적 조건이나 내부적 조건들에 자신의 방식대로 대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욕구나 충동에 적극적 통제나 조절을 할 수 있고 외부적 조건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Mackenzie & Stoljar, 2000), 본 연구에서는 Chang(2002)이 개발한 13개 문항을 측정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강간통념 : 강간통념은 강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과 틀린 생각으로(Kim, 1989), 본 연구에서는 Lee와 Choi(2001)가 개발한 20개 문항을 측정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강간통념을 높이 수용함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10주 간의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단일군 사전사후 유사 실험설계이다.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는 제 3변수의 개입이나 대상자들의 성숙에 의해서도 측정치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모집을 위해 G시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과 시청 홈페이지에 모집광고를 실었고, 시내 변화가 4곳에 현수막을 이용하여 2주간 광고했으며, G시와 인근지역에 위치한 성폭력상담소에 공문을 통해 연구대상자 모집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연구대상 희망자는 연구보조자에게 신청토록 한 후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다음의 조건 중 최소한 한 가지 조건, 즉 1)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회복지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

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행정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6)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중 한 가지 조건을 가진 대상자에 한해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발적인 연구 참여 희망자는 50명이었으나 이 중 연구조건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는 39명이었고, 10주 간의 프로그램 중 2주 이상 결석한 6명을 제외한 33명이 최종 연구대상이었다. 표본의 크기는 유의수준 (α .05), 검정력(β .2, 80%), 효과크기($f=0.5$)를 고려할 때, Cohen(1988)의 공식에 따라 실험군이 필요로 하는 표본수인 17명 이상이므로 적합한 표본 수 이상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도구

1) 성폭력에 대한 지식

성폭력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Song(2003)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성폭력 발생상황,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관한 13문항의 성폭력에 대한 지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위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표기한 것이 정답일 경우 1점, 틀리거나 ‘모르겠다’에 표기한 경우 0점으로 채점하였다. 7개 문항(2,3,4,5,10,12,13번)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Kuder-Richardson Formula는 .70이었다.

2) 성적 자율성

성적 자율성 측정도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Chang(2002)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조절 10문항, 대응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서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Cronbach's α :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3) 강간통념

강간통념의 측정도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Lee와 Choi(2001)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성폭력 피해의 책임귀인 8문항, 피해자의 성격 4문항,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5문항,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3

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위는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서 가능한 점수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간통념을 높이 수용함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0.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4.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방법 개발을 위해 간호학 전공교수 2명, G시 성폭력상담소장, G시 여성정책과장으로 구성된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팀이 구성되었다. 이 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원의 교육시간을 토대로 3차에 걸친 프로그램개발 워크숍을 통해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을 <Table 1>과 같이 개발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은 등록과 수료식 2시간, 강의 48시간, 비디오 시청 및 토의 3시간, 현장실습 및 사례발표 12시간의 총 65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프로그램은 2006년 4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10주간 매주 수요일에 1회 진행하였다.

<Table 1> Sexual violence counselor program

Week	Hrs.	Title
1st	1	Program orientation & pretest
	2	Woman's life
	2	Gender and feminism
2nd	2	Concept of sexual violence
	2	Introduction to counseling
	2	Ethics on social welfare
3rd	2	Sexual harassment: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workplace
	2	Woman's body
	2	Sexuality, man and woman
4th	2	Sexual culture and prostitution
	2	Sexual awareness of counselor
	3	Counselor's role and attitude
5th	2	Sex education for children
	2	Negative effects of incest
	2	Sexual violence of disabled person
6th	2	Social welfare system for women
	2	Psychological healing for rape victims
	2	Characteristics of dating rape
7th	2	Medical treatment of rape
	2	Introduction to domestic violence
	3	Watching a video tape on sexual violence
8th	2	Introduction to law
	3	Special law for sexual violence
	3	Understanding of sexual offender
9th	2	Management of rape victims in police
	8	Case study
	4	Discussion on the case study
10th	1	Program evaluation & post-test
	65	Total

5. 자료수집

프로그램 적용 첫 날, 사전조사를 위해서 등록 직후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폭력에 대한 지식, 성적 자율성, 강간통념을 측정하였고, 사후조사는 프로그램 마지막 날 수료식 직전에 성폭력에 대한 지식, 성적자율성, 강간통념을 조사하였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시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프로그램의 평가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9.3세였으며 30대가 48.4%로 가장 많았고 40대 36.4%, 50대 이상이 9.1%, 그리고 20대 이하가 6.1%였다. 전문대학졸업 이상이 81.8%였고 51.5%의 대상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81.8%) 결혼한 상태였고, 기독교 27.3%, 불교 21.2%, 천주교 15.2%, 기타 3.0%의 종교적 분포를 보였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3)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 (%)	Mean \pm SD
Age(years)	\leq 9	2 (6.1)	39.3 \pm 6.41
	30-39	16 (48.4)	
	40-49	12 (36.4)	
	\geq 50	3 (9.1)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6 (18.2)	
	College	10 (30.3)	
	University	15 (45.4)	
	Graduate school	2 (6.1)	
Employment	Yes	17 (51.5)	
	No	16 (48.5)	
Marital status	Married	27 (81.8)	
	Unmarried	5 (15.2)	
	Widow	1 (3.0)	
Religion	Protestant	9 (27.3)	
	Roman catholic	5 (15.2)	
	Buddhist	7 (21.2)	
	None	11 (33.3)	
	Others	1 (3.0)	

2.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의 평가

본 연구대상자에게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효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성폭력에 대한 지식 정도는 사전조사시의 11.6±1.80점에서 사후에 12.5±0.81점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 연구대상자의 성폭력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었다($t=-2.10, p=.049$).

둘째, 연구대상자의 성적 자율성 점수는 사전의 50.6±5.47점에서 사후에 53.7±8.25점으로 더 높아졌다. 따라서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 연구대상자의 성적 자율성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었다($t=-2.35, p=.028$).

셋째, 연구대상자의 강간통념 점수는 사전조사의 42.4±8.46점에서 사후조사 시 29.0±7.96점으로 더 낮아졌다. 따라서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 연구대상자의 강간통념의 수용도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었다($t=7.80, p=.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은 성폭력에 대한 지식과 성적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Table 3> Changes of knowledge toward sexual violence, sexual autonomy, and rape myths

Variables	Before	After	Paired t-test	p
	Mean ±SD	Mean ±SD		
Knowledge toward sexual violence	11.6±1.80	12.5±0.81	-2.10	.049
Sexual autonomy	50.6±5.47	53.7±8.25	-2.35	.028
Rape myth	42.4±8.46	29.0±7.96	7.80	.000

논 의

본 연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한 후 대상자의 성폭력에 대한 지식, 성적 자율성 및 강간통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연구대상자의 성폭력에 대한 지식 점수는 11.58±1.80점으로, Song(2003)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8.85±2.60점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들이 성폭력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성폭력특별법에서 성폭력상담원으로 교육받기 위해서는 7가지 자격기준 중 최소한 한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교육받기 전 이미

여성에 대한 이해수준이 일반 대학생들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실시 후 성폭력에 대한 점수는 12.46±0.81점으로 실시 전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은 연구대상자의 성폭력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성폭력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게 나타난 Yom과 Lee(2003)의 연구와 일치하며, 여자 중·고등학생 52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각한 성 피해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성폭력의 인식 정도가 더 낮았다는 결과(Kwon & Jang, 2003)와도 일맥상통한다. 결과적으로 의료적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방이 성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초점이 되며, 예방을 위해서는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1년 12월 성폭력 종합대책(안)을 마련한 바 있고 이에 따르면 성폭력발생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있어 성폭력예방에 있어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은 전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 연구대상자의 성적 자율성 점수는 50.58±5.47점(평균평점 3.89±0.42점)으로 Choi와 Ha(2004)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3.89±0.58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ang과 Lee(2003)의 연구결과 나타난 55.24점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를 보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성적 자율성 점수는 53.74±8.25점(평균평점 4.13±0.63점)으로 높아져 실시 전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성적자율성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Shin, Chun, Cho 및 Cho(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성적 자율성이란 성적인 상황에서 외부적 조건이나 내부적 조건들에 자신의 방식대로 대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욕구나 충동에 적극적 통제나 조절을 할 수 있고 외부적 조건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Mackenzie & Stoljar, 2000). 친구 혹은 애인에 의한 강간이 14.3%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 꽤 많이 있으며(Choi & Kim, 1998), 남학생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13.6%이고, 여학생의 경우 상대방 청에 못 이겨서 성관계를 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9%로 나타난 연구결과(Choi & Ha, 2004)로 볼 때 성폭력 상황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은 성폭력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Choi와 Ha(2004)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상대방의 청에 못 이겨서 성관계를 허용한 비율이 29%로 나타난 것에서 보듯이 성관계와 성폭력이 구분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이 저항(싫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물리적인 위협, 심리적 공

포 등이 따르기 때문에 저항이 쉽지 않고,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저항이 쉽지 않다.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돌보고 상호간에 매끄러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교육받은 여성들은 성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감정, 욕구보다는 타인의 감정, 욕구를 먼저 배려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지지 않겠다고 거부하기가 어렵다(Byun, 2000). 또한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보다 경한 피해를 입은 여성이나 피해를 입지 않은 여성들보다 이성교제 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힘들어하며 그래서 자기 손해적 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Kwon & Jang, 2003)도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지식의 강화만을 목표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 즉 성폭력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적 분별력과 대응력, 자기주장 능력 및 의사소통기술을 포함시키는 것(Lee & Lee, 2005)으로 선회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연구대상자의 강간통념의 수용도는 42.42±8.46점(평균평점 2.12±0.42점)으로 남자대학생(4.15±1.09점)과 남자퇴사(5.06±1.40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Lee, 1999)보다 매우 낮은 정도를 보였다. 또한 Lee와 Kang(2005)이 남자중학생(3.19±0.99점), 여자중학생(2.50±0.83점), 남자고등학생(3.06±1.09점), 여자고등학생(2.18±0.73점), 남자대학생(2.60±0.89점), 여자대학생(1.87±0.63점)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보다 낮은 정도를 보였다. 이는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문화권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에서 본 연구대상자들이 일반인들과는 달리 이미 강간통념의 수용도가 낮은 상태에서 본 교육프로그램에 합류했음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강간통념의 점수는 29.00±7.96점(평균평점 1.45±0.40점)으로 실시 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은 연구대상자의 강간통념의 수용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 강간통념은 강간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념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관계가 있다(Lee & Choi, 2001). 이성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남성주도의 성역할에 대한 각본(scripts)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성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며(Muehlenhard & Linton, 1987), 성폭력을 해보았거나 또는 체포되지 않은 경우 강간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다른 남자들보다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였다(Malamuth, 1981). 남성들의 경우 강간통념을 많이 수용할수록 성행동과 성폭력 경험이 많았으며(Lee, S. J., 1999), 여성들의 경우 강간통념이 성적 자기주장을 약화시키고 이것이 피해 상황이 되게 하는데 간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Lee, 2005). 즉 강간통념은 여성을 성적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을 높이는

영향요인이므로 강간통념을 낮추는 것은 성폭력 예방의 중요한 측면이 되며, 이를 교육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5년 한국의 남녀평등지수가 조사대상국 177개국 중 27위이고, 여성권한척도가 80개국 중 5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6), 강간통념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로서 자리 잡고 있는 남성본위적인 사고와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Lee & Choi, 2001)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 작업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고 여성과 남성의 인권이 다 같이 강화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필수불가결한 필요충족의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그간 많은 여성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운영효과에 대한 조사가 없는 시점에서,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 뒤 최초로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프로그램의 설계상 특정변수만을 검증하였고 프로그램의 내용 검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내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프로그램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시의 일반인 33명을 대상으로 2006년 4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1회씩 10주간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뒤 연구대상자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지식, 성적 자율성 및 강간통념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후 연구대상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지식과 성적 자율성의 정도는 증가되었고, 강간통념의 수용도는 낮아져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이 연구대상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향후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 다양한 측면에서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References

- Berry, D. B. (1995). *The domestic violence sourcebook*. Chicago: Contemporary Books.
- Byun, H. J. (2000).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the right of women's sexual health. *Women Health, 1*(2),

- 117-137.
- Chang, S. B. (2002). Development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8(1), 106-115.
- Chang, S. B., & Lee, M. K. (2003).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3(3), 339-346.
- Choi, M. S., & Ha, N. S. (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0(4), 318-330.
- Choi, I. S., & Kim, S. E. (1998). *Sexual violence in Korea*.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Erlbaum.
- Doosan encyclopedia (2005). *Encyclopedia*. Seoul: Doosan corporation.
- Han, K. S., & Ham, M. Y. (2000). A survey on sex 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Society Nurs Educ*, 6(1), 115-131.
- Kim, S. Y. (1989).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common notions on rape -centering around policemen, medical doctors, teachers, lawyers, counselors, journalis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S. K., Cho, A. J., Kim, Y. K., & Kim, Y. S. (2002a). *Reinforcement plan on function and role of aid center and shelter for family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S. K., Cho, A. J., Shin, E. J., Kim, Y. K., Park, S. K., Lee, K. W., & Yoon, Y. A. (2004). *Development appraisal index and evaluation for shelter against women violence in 2003 year*.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S. K., Lee, K. H., Kim, Y. K., & Cho, A. J. (2002b). *Development on sexua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and work manual*.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won, H. K., & Jang, J. H. (2003). Perception of sexual abuse behaviors and self-detrimental sexual behavior on adolescents victims. *Korean J Woman Psychol*, 8(1), 35-47.
- Lee, M. S. (1999). *Issues in legal problem of the female victim of sexual violence. Material for sexual education and sexual counseling(III)*. Seoul: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 Lee, S. J. (1999). Development of a rape myths scale. *Korean J Soc Pers Psychol*, 13(2), 131-148.
- Lee, S. J., & Choi, S. C. (2001). Rape myths acceptance and violent sexual behaviors. *Korean J Soc Pers Psychol*, 15(1), 97-116.
- Lee, G. H., & Kang, H. J. (2005). The relations among rape myths, types of sex role, and exposure to sexually obscene material. *Korean J Psychol Soc Issues*, 11(3), 23-40.
- Lee, J. Y., & Lee, E. S. (2005).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 Couns Psychol*, 17(2), 419-436.
- Mackenzie, C., & Stoljar, N. (2000). *Relational autonomy, feminist perspectives on autonomy, agency, and the social self*.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lamuth, N. M. (1981). Rape proclivity among males. *J Soc Issues*, 37, 138-157.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6). *Management report on facilities for family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in 2005 year*. Seoul.
- Muehlenhard, C. L., & Linton, M. A. (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 Couns Psychol*, 34, 186-196.
- Police Agency (2006). *Criminal statistics on sexual violence in 2005 year*. Seoul.
- Shin, Y. H., Chun, Y. K., Cho, S. M., & Cho, Y. R. (2005). The effect of a sex education program on knowledge related to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5(7), 1304-1313.
- Song, Y. S. (2003).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exual violence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Nurs*, 12(4), 444-452.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6). *Human development reports*. New York.
- Yom, Y. H., & Lee, K. E. (2003). The effect of a CD-ROM educational program for sexual violence prevention on sexual knowledge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9(4), 499-508.